

오늘의 기사판

행사 (14일)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교양강좌=오전 10시 광산구 청소녀수련관...
▲평립담 담수식=오전 11시 장성군 삼계면 평립담 수옥리 평립담(높이 37m·길이 390m·총 저수용량 850만m³)...

평립담 담수식 오전 11시 장성군 삼계면 평립담

▲제 47회 산학협동포럼=15일 오전 7시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룸...
▲가을철 시민 자기나누 심기 행사=오후 2시 30분 상무시민공원...
▲2006 빛고를 소리칭=14~24일(토·일 제외) 오후 7시 빛고을극작전수관 공연장...

는 가을밤 오페리아행'=14일(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41회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향연'=14일(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국제환경 사진전=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간...
▲타향속에 삶과예술=14일까지 의재미술관...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복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뉴스퀴즈

38.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당이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를 석권했습니다. 이 당은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 총 232석을 확보, 과반인 218석을 넘어섰고, 상원의석과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의회 공화당 지배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의회 운영 방식을 비롯, 한미관계, 북핵, 이라크전 등 대내외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년만에 의회 권력을 되찾은 정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민주당 ② 공화당 ③ 국민당 ④ 자유당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잘생긴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

- 1. 잘생긴 사람이 주먹질하면 터프. -못생긴 사람이 주먹질하면 강래.
2. 잘생긴 사람이 노래 부르면, "까~까~". -못생긴 사람이 노래 부르면 말 없이 취소 누르고, "어머! 잘못 들었네".
3. 잘생긴 사람이 공부까지 잘하면, "금상첨화". -못생긴 사람이 공부만이라도 잘하면, "배수진".
4. 잘생긴 사람이 즐기고 있으면, "조는 모습도 예술이다". -못생긴 사람이 즐기고 있으면 "재는 뭐 하러 산다니, 영원히 재워 줘라".
5. 잘생긴 사람이 길에서 막 뛰어가면, "어머 어떻게. 급한 일 생겼나 봐". -못생긴 사람이 길에서 막 뛰어가면, "넘어져라".
6. 잘생긴 사람이 길을 물으면, 최대한 공손하게 알려준다. -못생긴 사람이 길을 물으면, "저, 여기 안 사는데요"라고 한다.

■김만 제가 흘렸는데요

신나는 점심 시간, 교탁에서 도시락을 까먹었는데 흘린 반찬을 치워 놓지 않았다. 다음 수업시간, 담임선생님이 들어와 지적받은 교탁을 보게 됐다. 화가난 담임 선생님이 "누가 교탁에서 밥을 먹었어, 누구야!" 이 때 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일어났다 "김만 제가 흘렸는데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소리쳤다. "김만제 앞으로 나와!"

■대머리 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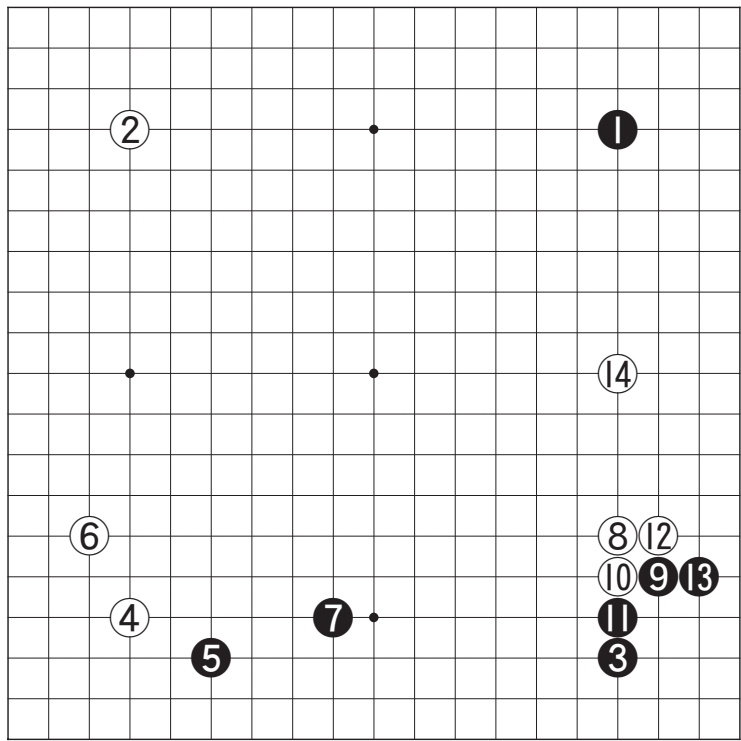
어릴적부터 머리카락이 나지 않은 소년이 있었다. 성장하면서 고심하던 이 총각, 어느날 병원에서 머리카락을 심었다. "와 정말 멋진데" 감탄하며 나와 집으로 뛰어갔다. 어머니에게 달려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위해. "어머니, 제 머리 좀 보세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다. "아들아, 군대 영장 나왔네"



▲얼마나 민졌으면... <유니텔 특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4일(음 9월 24일 丁未)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15회 光日盃 光州전남직장배바둑대회

포스코의 독무대 개인전 준결승 1국 1보(1~14)
白 정장효 5단 <포스코>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지금부터는 결승전 못지않게 중요한 4강전이다. 이 판을 이기면 꿈의 무대인 결승전에 진출하는 영예를 얻게 되며 지는 쪽은 김배지는는 3, 4위전을 치러야 한다. 이번 대회는 포스코의 독무대라 할 만치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포스코 선수들이 맹활약을 벌이고 있다. 준결승에 진출한 4명중 3명이 포스코 선수들이 정도로 광양에서 불어온 쇠가루가 대회를 휩쓸고 있다. 박광주 5단과 정장효 5단은 직장 동료로 단체전에서 함께 팀웍을 이...

바둑소식

백홍석, SK가스배 선승

백홍석 5단이 13일 서울 스카이라이프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0기 SK가스배 신에프로10월전 결승3번기 제1국에서 이영구 6단에게 260수 만에 백 7집 반승을 거뒀다. 백 5단은 중반 중앙전투를 선수로 마무리한 뒤 우하귀를 두텁게 지키며 집으로 우위를 확보한 뒤 침착한 마무리로 승리를 굳혔다. A조 본선리그 1위로 결승에 진출한 백5단은 이로써 지난 8일 삼성화재배에서 생애 첫 세계대회 4강에 진출한 기세를 몰아 신인왕 등극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대회 우승상금은 1천만원, 결승 2국은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No appreciation whatsoever), Japanese (バゲン 바겐세일), Korean (흡뽀 허풍을 떨다), and Chinese (人蔘 인삼). Each column contains a definition, a dialogue examp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language center.